



기다렸다 프로야구
올해도 흥행 예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7일 KIA와 삼성의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보기 위해 무등경기장을 찾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KIA 마운드 이상무, 방망이는 아직...

이중환 '연습생 신화' 예고... 주말시범경기 삼성과 1승1패

프로야구 몸풀기가 시작됐다.
6일 전국 4개 구장에서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일제히 시작됐다.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삼성 라이온즈를 맞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주말 2연전을 가졌다.
2010시즌 '최강 마운드'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양 팀은 치열한 마운드 싸움 끝에 1승1패를 주고받았다.
투-타에서 베스트 전력을 앞세운 삼성은 두 용병 크루세타와 나이트를 선발로 출격시킨 데 이어 권학, 권오준, 정현욱 등 필승계투진과 마무리 오승환까지 총 가동하면서 마운드 위력을 과시했다.
특히 6일 선발로 나선 크루세타는 5회까지 KIA 타자들을 퍼펙트로 묶으며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6일 로페즈, 로드리게스를 나란히 등판시킨 KIA는 7일에는 양현종을 마운드에 내세워 선발진을 점검했다.
로페즈는 야수진들의 잇단 실책 속에 8피안타로 4실점(2자책)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피칭과 구위로 시즌 전망을 밝혔다.
로드리게스도 한국에서의 첫 등판에서 2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합격점을

받았다. 6일 로페즈에 이어 6회부터 등판한 로드리게스는 최고 150km를 찍은 위력적인 직구를 앞세운 피칭으로 5명의 타자를 땅볼로 요리했다. 탈삼진은 1개를 기록했다.
7일 선발 양현종은 5이닝동안 93개의 공을 던지며 투구수 관리에 대한 숙제를 남기는 했지만 6피안타 2사사구 2실점의 패투를 선보였다. 1회 두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7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가장 기대를 모은 이동현도 특유의 돌직구로 두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등 1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으며

상쾌한 출발을 했다.
마운드가 핵심멤버를 위주로 2010시즌을 향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야수진들의 걸음은 더딘편이다. "타격 페이스가 아직 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힌 조범현 감독은 마운드에 비해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야수진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중환, 최용규, 김경민, 김민철은 1군 진입을 위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2경기 연속 선발출장한 이중환과 최용규는 포지션을 옮겨가며 가능성을 점검받고 있다.
전지훈련 '깜짝스타' 이중환은 시범경기에서도 거침없는 스윙과 한층 안정된 수비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이중환은 7일 6

회 1사에서 그린몬스터를 맞추는 급박한 타구로 3루까지 달리며 1군 무대에서 첫 안타를 신고했다. 7회 2사 1·2루에서도 좌익수 옆을 빠지는 2루타를 기록하며 5-2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썸기점수를 뽑아냈다.
약점으로 꼽히던 수비에서도 실수 없이 우익수, 좌익수 자리를 지키며 레이저 범 송구를 선보이는 등 '연습생 신화'를 예고했다.
한편 주말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들이 찾아 뜨거운 야구 열기를 보여줬다. 이슬비가 계속됐던 6일에도 1천여 관중이 찾아 그라운드와 볼을 미리 만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이범호가 7일 오후 후쿠오카 야후돔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 7회말 2사 2루에 2점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왼쪽은 요미우리 이승엽. /연합뉴스

KIA타이거즈 오늘부터 어린이 회원 모집

KIA타이거즈가 8일부터 어린이 회원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만 명으로 구단 홈페이지와 네포스 소핑몰, G마켓(이상 온라인), 롯데마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입비는 2만9천원이며 전국 프로야구장 무료입장(일반석), 무등경기장 상품

구입시 10% 할인, 구단 행사시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회원카드, 모자, 글러브, 안전구 등이 기념품으로 마련됐다. 어린이 회원 신청은 롯데마트 호남 12개점에서도 가능하다.
성인회원은 10일부터 모집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모집인원은 1천명이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가입비는 2만원으로 회원 카드와 팬북, 모자 등이 기념품으로 주어진다.
성인 회원은 광주 홈경기 일반석 입장권 구입시 2천원 할인(포스트시즌 제외)과 무등경기장에서 상품 구입시 10% 할인, 경기결과 문자전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범호, 승업 앞에서 투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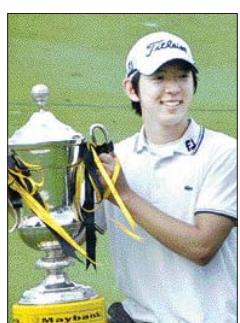
일본프로야구 데뷔를 앞둔 이범호(소프트뱅크)가 선배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보는 앞에서 공식 경기 첫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범호는 7일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야후돔에서 열린 요미우리와 시범경기에서 2-7로 끌려가던 7회말 2사 2루에서 가운데 펜스를 총알처럼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전날까지 때린 안타 6개가 모두 단타였던 이범호는 일본 공식전에서 첫 홈런이자 첫 장타를 홈구장에서 장식했다.
요미우리 원스 에이스 우쓰미 데쓰야의

볼 배합에 말려 3회와 5회 연속 삼진으로 몰아섰던 이범호는 강속구 투수 고바야시 마사히데를 상대로 세 번째 타석에서는 호라 호라 물러나지 않았다.
이범호는 볼 카운트 0-3에서 스트라이크를 잡고자 던진 가운데 직구를 그대로 퍼올려 야후돔에서 가장 먼 가운데 펜스를 훌쩍 넘겼다.
한편 6회 대타로 출전한 이승엽은 볼넷 1개를 골랐지만 8회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 시범경기 타율이 0.200(10타수2안타)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세계골프 한국의 날

한국남자프로골프의 희망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사진)이 유럽프로골프투어와 아시아투어가 공동 주최한 메이뱅크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더욱이 노승열은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40)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끝에 1타차 우승을 거둬 연장전을 기대했던 최경주를 미소짓게 했다.
공동 3위에서 출발한 노승열은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골프장(파72.6천99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언더파 68타를 치며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
2008년 10월 아시아투어 미디어 차이나를 래식에서 역대 두번째 어린 나이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이번을 일으켰던 노승열은 2

년도 되지 않아 유럽골프투어를 겸한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는 만만치 않은 실력을 뽐냈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무대로 진출한 안선주(23)도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안선주는 7일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장(파72.6천439야드)에서 열린 JLPGA투어 2010 시즌 개막전 다인인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 마지막날 보기없이 버디 5개로 5타를 줄여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정상에 올랐다.
상금 1천440만엔을 차지한 안선주는 2008년 송보배(24) 이후 2년만에 일본 개막전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가 됐다. 기존 신지애(22·미레에셋)와 박인비(22·SK텔레콤)도 5언더파 211타로 공동 2위에 올라 한국 선수 3명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안선주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통산 7승을 올린 대표적인 스타플레이어로 작년 12월 JLPGA 투어 켈리파이스쿨에서 공동 2위에 올라 일본 대회 출전권도 따냈다.
유럽여자프로골프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는 이보미(22·하이마트)가 깔끔한 경기를 펼쳐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보미는 7일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로열파인스 리조트 골프장(파72.5천862m)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를 잡아내며 6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20언더파 268타를 찍어낸 이보미는 카리 웹(호주·26언더파 262타)에게 우승컵을 넘겨주고 캐서린 힐(호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비록 웹에게 6타 뒤졌지만 이보미는 나흘 동안 보기를 한개도 기록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를 펼쳐 밝은 웃음을 지으며 돌아왔다. 웹은 마지막날 무려 11타를 줄이며 이 대회 통산 일곱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4관왕 서희경(24·하이마트)은 19언더파 269타로 4위, 라이벌 유소연(20·하이마트)은 15언더파 273타로 5위에 올라 한국 선수 3명이 톱5에 포진했다.
/연합뉴스

유럽·아시아투어 노승열, 최경주와 접전끝 1타차 우승
JLPGA 개막전 안선주 우승·신지애·박인비 2위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 이보미 준우승

'핵잠' 김병현 3년만에 ML무대

'핵잠수함' 김병현이 돌아왔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한 김병현(31)이 7일(이하 한국시간)밀워키 브루어스와 시범경기에서 3년여 만에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올랐다.
김병현은 1-4로 뒤진 5회말 2사 3루 팀의 3번째 투수로 구원 등판했지만 3분의 1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 2피안타 1실점했다.
등판하자마자 첫 타자인 라이언 브라운에게 왼쪽 펜스를 넘기는 2점 홈런을 얻어맞은 김병현은 곧장 2루타를 얻어맞았고 마지막 타자를 삼구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마무리하고 나서 교체됐다.
샌프란시스코는 1-12로 졌다.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올 시즌 두 번째 시범경기에서 무안타에 그쳤다.
추신수는 7일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와 시범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무안타로 주춤했다. 앞선 6일 첫 시범경기에서는 3루타를 포함해 안타 2개를 뽑아내며 3타수 2타수 1타점을 기록했었다. 한편 뉴욕 양키스의 박찬호(37)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시범경기에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